

##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에 의한 변형

김영란 (혜천대학)

### 차 례

1. 서론
2. 변형을 통한 해체의 표현
3. 패션에 나타난 해체의 과정
4. 패션에 나타난 해체 변형의 특징
5. 결론

### 1. 서론

20세기 이후 패션은 디자이너의 감성과 시대적 이슈 및 다양성의 결과로서 일반적인 형태의 의복을 벗어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패션을 이해하는데 큰 열쇠로 간주되어온 사회적 구별이란 도식은 옷의 영역이나 대상들과 현대문화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패션의 특징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패션의 ‘왜곡된 형태들’ 너머에서 민주제도와 의식의 자율성에 대해 패션이 가진 위대한 긍정적인 힘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의복은 가장 가속화된, 가장 번덕스러운, 가장 스펙터클한 형태 혁신의 극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다양한 패션의 형식은 사회적 합리성의 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합리성으로 측정할 수 없고 근대성에 급속하게 적응하며, 변형의 가속화를 진행시키고 한없이 변하는 특징으로 오늘날 새로움이라는 가치를 통해 사적인 개성과 개인의 자율성에 호소하면서 진전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변형이 인체의 이상적 미와 균형을 위한 것이었다면, 20세기 이후 패션에서의 변형은 자유로운 창조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가지며, 해체를 통해 변형의지를 나타내고 인체와 의복의 재인식을 통해 부분적 변형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복 형태의 변형과 재창조는 20세기 이후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작품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에서 부각되고 있는 ‘몸’의 이미지의 확산은 쾌락, 욕망, 차이, 놀이를 강조하는 현대 소비주의의 특성으로 후기 산업사회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생긴 문화적 환경의 일부이다. 몸은 더 이상 가족 경제의 재산, 부, 상속의 관계 속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개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소비문화에서 몸은 멋진 삶의 상징이며 문화 자본

의 표식으로서 개인의 감정이 흐르는 통로이며 욕구와 욕망에 의해 변형 가능한 존재 양식으로 새로이 간주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처음 논의된 해체주의는 겉으로 드러난 외양보다는 근저에 숨어있는 어떤 체계나 법칙을 찾아 전체적인 “구조(structure)”만을 중요시함으로써 개체를 전체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독선에 빠지기 쉬운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인 근원(origin), 중심(center), 현존(presence)등과 로고 중심주의를 부정하고 전통이나 말 중심인 밖에서의 파괴(destruct)가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construct)해 놓은 것들을 근본부터 해체(deconstruct)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이후 의복의 미적 기능이 각 시대별로 추구했던 이상형의 인체를 구현하는 것과 미의 규칙에 따라 인체를 장식하여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거나 형태미를 강조하고자 하던 것에서 나아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 2. 변형을 통한 해체의 표현

국어사전에서의 해체(解體)란 단체 따위가 흩어지거나 또는 그것을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 체제나 조직 따위가 붕괴하고 또는 그것을 붕괴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가 풀어져 흩어진다거나 또는 그것을 뜯어서 헤치는 것으로 구조물 따위가 헐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플라톤 이래 서구 철학의 이분법적 전통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여 차연, 분산, 보충, 상호 텍스트성을 제시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처음 논의된 20세기 중반 이후 문학 분석 운동을 서술하는데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이는 어떤 것도 언어와 용례의 복잡성에 기초해 고정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종래의 구조주의 문학 분석에 대한 반동이기도 하다. ‘해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해 데리다는 해체주의가 표명하는 전체적 이슈는 결국 서구의 현전(現前)의 형이상학적 사유가 체계화하고 전체화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강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해체주의와 패션과의 관계는 문자 그대로 봉제선이 떨어져 나가고 소매가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리다가 주장한 구조적인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거부하여, 의복과 관계된 모든 것들 자체가 부서지고 다시 상상되고 실험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으로 패션에 적용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철학에서 시작된 해체주의는 그 후 건축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분야에 영향력을 넓혔다. ‘해체’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역으로 분해, 풀어헤침, 파괴를 뜻한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거나 구성할 때 어떤 기존의 형식을 이루는 바탕을 풀어 헤치는 것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해체이론은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들을 송두리째 뒤집고 있고 나아가 플라톤 이후의 서구 형이상학 전반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고 간주된다(정용교, 1991).

해체주의 이론의 기본이념 및 특성에 대해 서구의 전통적인 사고인 ‘이성중심주의’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주의적 세계관은 종말에 다다랐고, 이 세계가 와해됨으로써 서구적 인간이 이어 받아 온 기표(記標)와 기의(譏議)의 결합으로 된 체계로서 닫힌 체계 내에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열린사회, 열린 사고를 추구한다. 따라서 해체전략의 목표는 현전(現前)의 형이상학을 좌절시키고 그 의미의 체계를 전복하는 것이다.

즉,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개념 및 특성을 노출(disclosure)적 표현과, 파괴와 빈곤적 표현이라 정의하고 있다.

패션에서의 해체는 우리 시대의 철학과 예술 작업과 마찬가지로 고뇌하고 치환된 개념으로 파격성을 보인다.

이들 옷은 새로운 미래의 패션을 창조하기 위해 패션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분해하여, 그 제작 및 통합 과정과 각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 자체를 파괴하고 해체한다. 이러한 패션 철학은 가와쿠보의 패션에 대한 접근 방법인 “無에서의 출발(to start from zero)”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던 패션은 소위 그런지(grunge)패션과 70년대의 플레어(flared)와 패치워크(patchwork)의 리바이벌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20세기 문화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구분되어 공존하던 모더니즘(modernism)시대와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고급문화나 대중문화 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패션의 트렌드를 뒤섞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퓨전 바람이 패션분야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퓨전(fusion)은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를 녹여(fuse) 한데 합친다는 것으로 제3의 것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특히, 1989년 10월 파리에서 디자이너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에 의해 선보인 해체주의 복식은 기이한 아이디어로 의복의 구성적 요소들을 분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관념에 대한 반발을 시도하였는데, 에로티즘·시스루(see through)·란제리룩으로 표현되는 노출, 히피·펑크·키치(kitsch)로 표현되는 파괴, 그런지(grunge)·빈티지(vintage)·정크(junk)로 표현되는 빈곤, 패러디로 표현되는 탈 구성, 추한 미로 표현되는 모호성, 성(性), T·P·O로 표현되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해체 형식을 보인다.

인간 외부 세계에 대한 의복의 역할에 대한 해체주의의 경향은 의복의 신체 피복의 역할을 거부하면서 의복의 요소들을 폭로하려는 듯 옷을 조각조각 찢어 분해하면서 문화적 관습으로서 의복 구조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적절하게 인체를 피복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옷으로서 그 기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체에서 시작된 의미의 옷은 의복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미적인 형태로 조합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작가의 심상을 자유롭게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표현의 방식이 과격하게 나타나는 과정일 뿐 인체의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옷과 인체를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 형식이 일정한 규칙이 없고 표현의 방법이 의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 3. 패션에 나타난 해체의 과정

의복의 구성 부분들을 조형적으로 확대, 축소, 단순화의 과정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새로운 요구는 의복을 찢거나, 분해하여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패션의 작업들은 해체주의적인 모습이나 누더기 같은 빈티지 룩 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조형의지는 외적으로 불완전 하면서도 고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변형의 조건이 가능한 한 최대한 자유롭게 비정형의 형태로 변화를 주게 되는데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림 1>의 웨어링 소매의 형태를 자유롭게 해체하여 기능적인 면을 무시하여 구성하거나 <그림 2>과 같이 코르셋 전체를 도려내듯이 커팅하여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의복의 입는 형식과 구성에 있어 상호작용의 부채를 드러내게 된다.

다양하게 해석된 해체의 변형 표현은 <그림 3>은 다소 규칙적으로 해체가 이루어진 모습은 나름대로 안정감을 주지만 단순한 디자인의 티셔츠에 있어서 일상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좀 더 파괴적인 해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그림 4>은 불규칙하게 찢겨진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남겨진 여분의 조각들을 묶어서 나타나고 있다. 즉, 넥크라인 부분에 남아 있는 밴드의 부분과 가로로 묶여져 반복되는 가슴부위까지 연장되고 횡적인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가로로 노출되는 인체의 부분들의 완급을 통해 인체의 부분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묘한 충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그림 5>는 세로의 해체를 통해 깊은 V넥의 자연스러움과 각각의 조각들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부분들의 불규칙함으로 수직적인 해체의 절개에 의한 인체의 부분들이 위치가 다르게 약간씩 노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체에 의한 변형은 작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좌우되어 똑같은 모양으로 변형된 의복이라 하여도 입는 사람의 체형과 착용방법에 의해 또 다른 디자인으로 변할 수 있는 개성적인 디자인이 되는 것이다. 즉, 해체의 묘미는 의외성과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적인 행위이며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체에 의한 변형은 의복이 제작되기 전의 계획적인 의도이든 의복이 완성된 후이든 간에 여러 부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 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 그림 1. 웨어링 슬리브 (wearing sleeve) 형태의 해체 변형.



▶▶ 그림 2. 19세기 메탈 코르셋 구조를 커팅으로 해석. (2001 S/S 장 폴 고티에 꾸뛰르 www.style.com)



▶▶ 그림 3. 일정한 규칙에 의한 바디스 부분의 해체. (Terry Jones & Avril Mair, 2002. FASHION NOW)



▶▶ 그림 4. 넥크라인, 바디스, 소매 부위 등에 나타난 수평적 해체. (Terry Jones & Avril Mair, (2002). FASHION NOW)



▶▶ 그림 5. 어깨와 바디스, 소매 부분의 수직적 해체. (Terry Jones & Avril Mair, (2002). FASHION NOW)

## 4. 패션에 나타난 해체 변형의 특징

### 4.1 내적인 특징

의복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한다는 것은 의복비평을 글 읽기에 비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그것은 문학비평에서 한편의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쓰이는 개념과 방법론들이 복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법칙을 갖는 체계로서 의복 언어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의복을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 텍스트로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언어학으로서의 기호학의 연구대상으로 패션이라는 현상을 포함 시킨다는 뜻이 된다.

해체 이론은 기호의 재현 가능성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재현은 의미의 중심이 현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유기적 구성과 구체적 보편성 등이 텍스트 내에서 재편성되어 비지속성, 기표와 기의간의 간극, 의미소멸, 감상자의 보편적 경험 소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이상학과 인간이라는 주제에 의해 재현되지 않는 형태들은 다의적으로 조직되어 얽혀진다.

해체주의에서 탈피의 개념을 갖는 ‘dis. de’의 개념은 복식에서 탈 중심, 탈 구성, 위치전환으로서의 전위, 일정 규칙이나 룰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한다.

해체주의에서 기호의 재현성이 상실되면서 착장방법에 있어서 상하의, 겹·안감, 내외의, 탈착 등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인체에 밀착하는 똑같은 완성상태를 보여주는 서구의복과는 다른 착장자에 의해 완성되는 미완성상태인 동시에 불확정적으로 확장연출을 하고 레이어링을 하게 된다.

### 4.2 외적 형태 구성상의 특징

#### 1) 노출의 과장성

노출은 은폐와 더불어 의복의 변천을 이루는 중요한 경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인간이 의복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된 경향을 가지는데, 신체를 은폐하여 인간의 도덕심을 만족시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인체를 노출시켜서 미를 나타내고 인간의 내적인 욕구를 표현하려는 것이다. 극단적 과장의 패션은 노출과 은폐의 반복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의복형태의 파괴성

패션에 있어 파괴는 그 의미적 적용이 ‘해체’라는 문자 그대로 적용된 외부로부터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의복을 만들기 전에 천에 칼집을 내고, 휴지처럼 불품없이 구겨놓기도, 혹은 휴지 조각 같은 천으로 의복을 만들어 옷감을 파괴하고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하여 충격 효과와 긴장감을 나타내는 경우로써, 펑크룩과 같은 해체성을 나타내게 된다.

#### 3) 분해에 의한 재구성

포스트모더니즘의 80, 90년대에 등장하는 패션에서의 해체라는 요소는 현대 의복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획기적인 사고와 응용으로 1990년대 패션을 이끌어가는 해체주의적인 디자인은 노출, 파괴, 빈곤적 표현을 다루며 의복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의복구성으로써의 분석적인 해체작업을 통해 더욱 창조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복이 물리적으로 무엇인지 실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분해 작업은 복식의 섬세한 창조 밑에 사치스러움이 숨겨진 지적 능력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 5. 결론

현대 패션에서 해체에 의한 변형은 기존에 존재하는 구성의 반대적 구성요소를 상기하여 내적, 외적인 변이에 의한 형태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해체주의의 특징을 패션에 접목해 보면, 크게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탈구성화,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나뉘어진다. 상호텍스트성이란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계를 의미하지만 제한된 의미로는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다른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복이 하나의 주체로서 위치하며 생산적 역동적인 텍스트임을 간주할 때, 의복 역시 단독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 병행 인용을 통한 자연의 유희를 이룬다.

해체주의에서 중심에서의 탈피개념을 가진 “탈현상”이 패션에서는 탈중심, 탈구성의 양상을 나타낸다. 탈중심은 해체주의의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억압된 것들의 복귀현상으로 인한 주제, 중력장의 수직,

수평을 탈피한 사선, 곡선의 앞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행동과 꿈, 내·외부, 순간과 영원이 융해됨으로써 해체를 이루게 되는 초현실주의의 무의식에 의한 전위 역시 모더니즘의 의식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무의식이 해방되어 일상용품, 악기 등이 전위되어 은유적 상징을 이룬다. 탈 구성은 건축 할 수 없는 건축 공간, 입을 수 없는 옷도 순수한 옷의 형태라고 함으로써 의복의 기능성, 목적론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체주의에서 기호의 재현성이 상실되면서 로고 중심주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자연의 유희로, 즉 열린 사고로 나아가면서 모든 패션의 원리는 불확정의 원리로 통합된다. 해체주의 복식에 나타난 형태구성상 특징으로는 노출의 과장성, 의복형태의 파괴성, 분해에 의한 재구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체주의 패션은 내적인 표현의 의지가 외적인 형태에 변형을 가해 디자이너의 창조적 의지가 반영되어 극대화 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극단적인 변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해체주의 패션은 남녀, 동서양, 지위,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연령, 시공, 미와 추를 구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켜, 이것이 형이상학 혹은 전통적인 미적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미적으로 열린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1] Lipovetsky, Gilles (질 리포베츠키), 1987년. L'EMPIRE DE L'ÉPHÉMÈRE, 이득재 옮김. 패션의 제국, 서울: 문예출판사, 1999년  
 [2] 이민정,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년  
 [3]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88년  
 [4] 네이버닷컴, <http://dic.search.naver.com> 국어사전  
 [5] Bernasconi, R. & Wood, D., ed., Derrida and Difference, trans. by D. wood, A. Benjamin (Evanston : Northwestern Univ. Press), 1988년  
 [6] Spindler, Amy M. Coming Apart, The New York Times, 1993년 7월 25일  
 [7] 은영자, 김선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28호, 2002년  
 [8] 조선희, 서경희,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특성에 관한연구 II, 산업기술연구, 15호, 2003년  
 [9] Deyan Sudjio, Rei Kawakubo and Comme des Garçons,

New York : Rizzoli, 1990년

[10] 김성복,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논문집, 18호, 1994년.

[11] 이순홍 외 8인,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서울: 교문사, 2004년

저자 소개

● 김 영 란 (Young-Ra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미술학사)
- 2000년 8월 :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의류학 석사)
- 2007년 2월 :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의류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해천대학 슈즈디자인

전공 교수

<관심분야> : 패션·슈즈디자인, 문화 콘텐츠(전시, 패션쇼)